

[반도체]

Aug 24 2026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 발표

역대 최대 90~110조원 주주환원과 30조원의 현금배당

삼성전자는 올해 약 90~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기존 최대였던 2020년 20.3조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로 절대적인 환원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임. 삼성전자는 임직원 보상을 위해 약 15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별도로 결정했으며 3분기 정규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할 예정. 잔여 환원 규모와 방식은 연간 실적 확정 이후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임.

시장 기대치 140조원에는 미달

시장은 정책 이행 자체보다 반도체 업황 호조와 FCF 급증이 추가 환원으로 얼마나 연결될지에 더 주목해 왔음. 이에 따라 올해 주주환원 규모가 약 140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선반영돼 있었으나, 실제 제시된 규모는 90~110조원으로 시장 상단 기대치 대비 최대 30~50조원 낮은 수준임. 절대 규모는 역대 최대지만 기대했던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프라이즈 환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대치 미달에 따른 단기 차익실현으로 주가도 장중 고점 대비 하락 마감함.

실적 개선은 유효, 주주환원은 기업가치에 긍정적

삼성전자의 금번 주주환원 및 자사주 매입 결정은 환원 규모 자체보다 자본배분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금번 정책은 역대최고 수준의 주주환원이며 향후 잔여 환원재원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이 확정될 경우 주당가치 개선 효과도 추가로 확인될 수 있음.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과 HBM·서버 DRAM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주환원까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과거 대비 Valuation 할인 요인을 완화하는 요소로 판단함.

결국 이번 90~110조원 주주환원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기대치에 다소 못 미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금창출력 개선과 자본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벤트임. 실적 성장에 더해 대규모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이 병행되는 구조가 정착될 경우 ROE와 주당가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체 기업가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 기준일자_2026.06.30

구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율	94.7%	4.6%	0.7%	0.0%

【업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향후 6개월 기준, 2015.6.1(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거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